

강력한 집회가 메스컴 부른다

- 여론 형성 위한 강력한 집회 요망, 국산 녹용 홍보에도 만전을 -

“우는 아이 젖준다. 그러나 웬만큼 울어서는 들리지도 않는다.”

9월11일 실시되는 범 양록인 결의대회 행사가 보다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과천경찰서와 종로경찰서 정보계 담당자에 따르면 년중 종묘공원 및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되는 집회는 340~36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거의 하루에 한번 집회가 있는 꼴. 이 많은 집회 중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집회는 년중 몇건되지 않는다. 집회가 너무 많아 일일이 보도할 수도 없지만 행사 주최측의 언론홍보 부족과 메스컴의 구미를 당길만한 이슈도 없었기 때문이다.

메스미디어의 힘은 강력하다.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단 여론을 등에 업으면 이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울초 한우협회가 호주산 생우수입을 전면 막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 강력하고 조직적인 집회가 이루어졌

으며 언론 또한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호응했기 때문이다.

방송 3사에서 보도되는 내용 및 주요 일간지에서 게재되는 내용을 접하며 국민들은 국내 축산농가의 현실을 알 수 있었고 생우 수입의 부정적 요소들을 이해하며 그들과 뜻을 같이 했다. 이후 생우 수입업자는 수입을 포기, 한우협회는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생우 수입이 전면 철회된 후 국내 송아지 값이 큰 폭으로 상승된 것은 성공적인 행사의 덩.

지난 8월30일 진행된 양록인 결의대회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주요 거대 언론의 시선을 움직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불거리가 풍성한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진위원들은 “집회 중 다소 법을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주요 언론을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지회차원에서 각각 시슴 몇마리씩 신고 행사장으로 집결하여 필요에 따

라 방사도 실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본회 춘천지회 홍종환 지회장은 “양록인 쫓기대회 행사 내용을 관련 언론 및 주요 언론에 미리 알려 참여를 유도, 일반 국민에게 양록인의 절박한 심정을 알려야 한다”고 밝히고 “각 지회별로 사슴을 할당, 행사장으로 집결하자”고 주장했다.

사슴을 신고 서울로 상경한다는 정보가 유출, 검문소에서 제지 당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검문소에서 제지를 당한다면 그 또한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주요 고속도로의 차량 지체를 통해서라도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회 안점동 지회장 역시 “금번 행사



▲ 강력한 집회가 마스크를 부르고 여론을 주도한다

가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 조직적인 집회가 이루어져야하며 집회시 다소의 불법적 요소가 가미되더라도 강력한 실행행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은성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행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양록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강력한 집회를 당부했다. 또한 “관련 농축산 언론지는 수시로 보도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 이미 기사가 게재되는 등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거대 언론에도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KBS와 MBC 보도부 차장을 본인 농장으로 초청, 국내 양록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은성 상임 추진위원장은 “금번 집회에서는 뉴 절편녹용의 수입요구 철회와 함께 국산녹용의 우수성도 더불어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행사 진행에 있어 국산녹용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추진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차잔속의 태풍’, ‘그들만의 외침’으로 머물어서는 안된다는 양록인들의 지적과 의지가 팽배한 만큼 금번 집회는 강력하면서도 어느정도 과격한 성격의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대양록**